

고통 측정계

-아세르 인트레이터

어떻게 고통을 측정합니까? 누군가 내 발을 밟으면 나는 아프지만 그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경 말단은 나의 의식 가운데 고통을 전달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만 느낄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느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느끼려면 우리 본연의 감정과 능력 이상의 민감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민 compassion”과 “동정 sympathy”이라는 단어에서 passion 과 pathos 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com 과 sym 은 “~와 함께” 혹은 “~와 나란히”라는 뜻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할 때 우리는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을 감지하고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역사상 가장 연민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연민 때문에 우셨고 (눅 19:41, 요 11:35, 히 5:7) 연민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하셨습니다 (마 9:36, 14:14). 이사야 53 장은 두 번이나 메시아께서 “슬픔(간고)을 겪은 사람” (3 절)이요 “우리의 고통(질고)을 겪은 사람” (4 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고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כאב (케에브) 가 아니라 같은 어근을 가졌지만 좀 더 시적인 형태의 כאמ (마케오브) 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분의 것이 아닌, 그런 고통을 기꺼이 겪으려 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숙하여 더욱 예슈아 같아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겪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후 1:6).

인질!

최근 세 명의 이스라엘 10 대들을 납치한 사건에 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의미심장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1. **기도** – 이 소년들의 귀환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종교계의 기도로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형식은 시편을 함께 읽는 것이 근간입니다.
2. **히치 하이킹** – 몇몇 언론에서는 정착민들이 인질로 잡혀갈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히치 하이킹을 통해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의문을 던졌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강간당한 소녀를 비난하는 것과 유사한 이런 류의 논리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정착민들은 대꾸했습니다.
3. **영토-수색** – 이 사건이 헤브론 Hebron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군은 인질들이 잡혀 있을 만한 고리를 차단하고자, 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하며 모든 집과 동굴을 확인했습니다.
4. **하마스** – 군이 노력한 두 번째 부분은 하마스 리더십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200 명 넘게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마스의 기반을 영구히 해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전략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정권이 항의를 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마스는 경쟁자입니다). 이것은 하마스를 약화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비평가는 이집트에서 알 시시가 이슬람 형제단에게 했던 일을 어찌면 비비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정권을 위해 해 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5. **이념** – 인질로 잡힌 소년들은 “구쉬 에찌온” 출신입니다 (냐탈리 베네트의 바이트 예후디 당과 관련되어 있고 까만 옷을 입지 않으며, 군복무 및 정치적 의무를 이행).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서는 영토 내 정착촌의 전략적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현대적인 정통 유대교 정착민들은 우익 성향의 이념적 시온주의의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6. **인질 교환** –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이스라엘 인질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테러리스트 죄수들을 돌려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러자”고 말하고 있고, 우파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라드 샬리트 Gilad Shalit 는 자유주의 가정 출신이었지만, 이번에 잡힌 소년들은 시온주의 우파 핵심 인물들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인질을 죄수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온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들들을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이념적 이해관계가 지극히 큼니다.

나자렐의 아랍 시온주의자

한 아랍 청소년이 확고한 태도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인질의 귀환을 요구하며, 지하드 신봉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3 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16 세 소년 무함메드 조아비 Muhammad Zoabi (확고하게 반이스라엘적인 크네셀 의원 하넌 조아비 Haneenn Zoabi 의 사촌)는 자신의 말을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바르 미쯔바

이번 주에 몇몇 식구들은 요아브 (데이빗의 아들이자 에이탄의 손자)의 바르 미쯔바에 참석해서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이 의식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저희는 오랜 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믿습니다. 오랜 충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 그 왕국 약속의 기초가 되는 3 대 - 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탄, 데이빗, 요아브와 이들을 둘러싼 모든 "지파"는 이 아름다운 원칙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서서 요아브를 축복할 때, 데이빗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함께 그의 아들의 바르 미쯔바를 축하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30 년 전에 제가 그의 바르 미쯔바를 위해 (토라 낭독을) 훈련시켜 주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오랜 관계를 찾아보기란 드문 일입니다. 언약적 충성과 공동체 세우기는 "구식"이요 상관 없는 일로 비쳐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식을 지켜보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각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성취하는 듯 보이는 것들 대부분은 영원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시험을 견뎌낸 관계에는 영원한 의미와 만족이 있습니다.

상급

귀한 성도 앤 미첼 (저희의 믿음의 자매이자 친구인 앤 캐롤의 어머니)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미첼 여사는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6 월 6 일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